




배포 일시	2022. 10. 24.(월)		
담당 부서	건축문화경관과	책임자	서기관 김용수 (044-201-4836)
	(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)	담당자	주무관 안영경 (044-201-3780)
보도일시	2022년 10월 2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4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립도시건축박물관, 올해 마지막 소장품 구매 나선다.

- 공개구매와 함께 유물 복제 등 소장품 확보 다각화 방안 마련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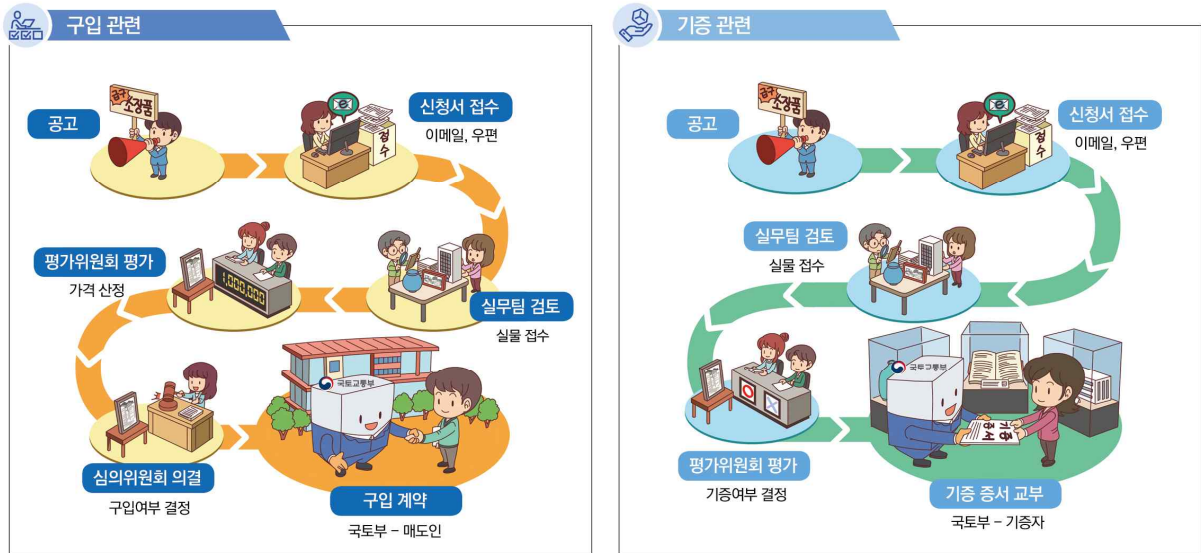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2025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자료 확보를 위해 금년도 마지막 공개 구매를 시행(10월 26일 공고)한다고 밝혔다.
 -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올해부터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한 도시 및 건축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으며, 지금까지 두 차례 공개구매를 실시한 바 있다.
- 구매 대상은 도시와 건축과 관련된 기록물(문서, 출판·인쇄물, 사진, 동영상 등), 모형, 유품, 기념품, 생활용품 등 모든 유형의 자료가 포함되며, 3차례의 관계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구매여부를 확정하게 된다.

《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구매대상 예시 》

출판물	기록물	생활용품
		
전국주택설계현상당선작품집 (1959, 보건사회부)	조선시대 토지매매증서 (1800년대)	진공펌프 (1970년대)

- 자료 매도 및 기증 희망자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자료매도(기증) 신청서, 자료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갖춰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팀으로 메일·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.

※ (메일) estel@korea.kr (우편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 문화경관과 (30103) (전화) 044-201-3780



□ 한편, 국립도시건축박물관팀은 실물 전시가 곤란한 도시·건축의 특성을 감안하여 축소·복제 모형 등 소장자료의 직접 제작에도 적극 나선다.

- 우수 건축물과 도시를 충실히 구현하는 모형제작 등을 통해 다양하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다채로운 박물관 전시계획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.

《 다양하게 구현된 건축·도시 모형 》

홍파동 골목모형	광화문 앞 육조거리 모형	승례문 모형
		
돈의문역사관 소장	국립고궁박물관 소장	기흥성박물관 소장
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” 이라면서,
 - “국토부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등을 통해 소장품 구매·제작 등 박물관의 건립과정에서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